



## 미 증시, 미국 경기낙관론, 빅테크 실적 기대감에 반등

### 미국 증시 리뷰

24일(월) 미국 증시는 유로존 지표 부진 및 FOMC 경계심리에도, 미국 경기 낙관론 확산, 낙폭과대 인식과 빅테크 실적 기대감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 (다우 +0.52%, S&P500 +0.4%, 나스닥 +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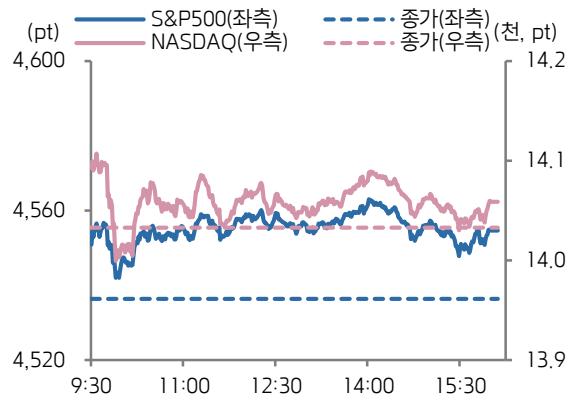
미국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49.0(예상 46.2, 전월 46.3)로 3개월만에 최고 수준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 PMI는 52.4(예상 54.0, 전월 54.4)로 5개월만에 최저치. 집계측은 "7월은 경제 성장 둔화와 약해진 일자리 창출, 기업 신뢰도 하락 등으로 달갑지 않은 조합",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 증가율은 3분기에 대략 1.5% 정도의 분기 성장을 수준으로 확장되는 것에 부합한다"고 언급.

한편 유로존 7월 HCOB 제조업 PMI 속보치는 42.7(예상 43.5, 전월 43.4), 서비스업 PMI는 51.1(예상 51.5, 전월 52.0) 기록하며 예상치 모두 하회. 제조업 지수 내 생산지수는 전월 44.2에서 42.9, 투입 물가지수는 39.5에서 35.5로 급격히 감소. 집계측은 "모든 부문에 광범위한 침체가 나타났지만 제조업이 특히 다시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하반기에 성장부진을 예상했지만 이번 통계로 유로존의 7~9월 3분기 GDP의 소폭 축소할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

24일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 코로나 19 일상 회복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를 내수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 외부 환경의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핵심 위험으로 간주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구입 의욕을 자극하도록 도시 지역의 매수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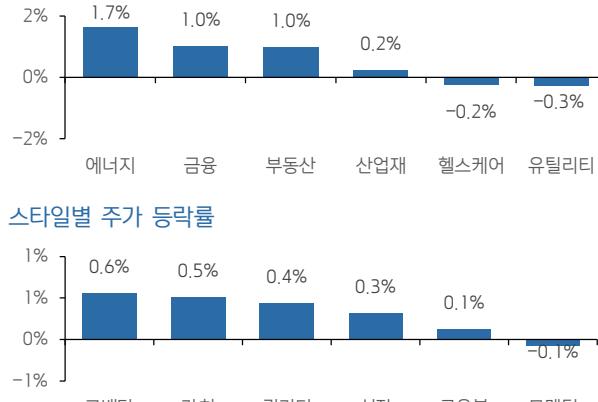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1.7%), 금융(+1%), 부동산(+1%) 업종은 강세, 유太高리티(-0.3%), 헬스케어(-0.2%), 산업재(+0.2%) 업종은 약세. 애플(0.42%)은 올해 아이폰 15 출하량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8500만대로 설정. 9월 출시를 앞두고 중국 경기 침체, 스마트폰 판매 8개 분기 연속 YOY 감소 등 세계적인 소비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 등으로 강세. 테슬라(3.48%)는 인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 인도에 2만 4000달러대 저가형 신차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반등.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28.53	+0.72%	USD/KRW	1,279.77	-0.28%
코스피 200	344.32	+0.56%	달러 지수	101.37	+0.3%
코스닥	929.90	-0.5%	EUR/USD	1.11	+0.01%
코스닥 150	1,517.96	+0.8%	USD/CNH	7.19	+0%
S&P500	4,554.64	+0.4%	USD/JPY	141.46	-0.01%
NASDAQ	14,058.87	+0.19%	채권시장		
다우	35,411.24	+0.52%	국고채 3년	3.620	+1.8bp
VIX	13.91	+2.28%	국고채 10년	3.646	+1.1bp
러셀 2000	1,965.68	+0.28%	미국 국채 2년	4.919	+8.2bp
필라. 반도체	3,692.32	-0.18%	미국 국채 10년	3.873	+3.8bp
다우 운송	16,196.69	-0.22%	미국 국채 30년	3.922	+2.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83.03	-0.19%	WTI	78.74	+2.17%
MSCI 전세계 지수	699.15	+0.25%	브렌트유	82.75	+2.07%
MSCI DM 지수	3,037.44	+0.29%	금	2001	-0.21%
MSCI EM 지수	1,013.45	-0.11%	은	24.44	-1.06%
MSCI 한국 ETF	67.30	+1.92%	구리	384.05	+0.9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36%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78.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1. 7 월 FOMC 경계심리가 만들어낸 시장금리 상승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중국의 경기 부양 조치 발표로 인한 중화권 증시 및 국내 관련주 추가 흐름
3. 2 차전지 업종으로의 수급 쓸림 현상 지속 여부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침체 진입 여부 및 침체 강도 문제는 인플레이션 이외에도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지난주까지만 해도 CME FedWatch 상 “7 월 인상 and 9 월 이후 금리 동결”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연준의 정책 금리 경로가 전일을 기점으로 “7 월 인상 and 9 월 동결 but 11 월 인상”쪽으로 급격히 변경된 것도 미국 경기 전망이 바뀐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임(21 일에는 11 월 인상 확률이 27%대 였으나, 24 일에는 50%대로 상승).

ISM 의 PMI 만큼 활용도나 선행성이 높진 않지만, 전일 발표된 S&P500 의 서비스업 PMI(52.4 vs 컨센 54.0)가 부진한 반면 제조업 PMI(49.0 vs 컨센 46.3)는 호조세를 보이는 등 대체로 양호했다는 점은 미국 경기 둔화 우려를 완충시켜주는 요인. 더 나아가, 7 월 NABE(전미경제학회)의 서베이에서는 원재료 비용 하락, 양호한 소비 및 기업 매출 증가 등을 근거로 응답자들의 4 분의 3 이 1 년 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확률을 50% 이하로 전망했다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해가고 있음을 시사.

이렇듯 미국 경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7 월 인상 이후에도 연준의 추가 인상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될 소지가 있음. 하지만 1) 침체의 전통적인 선행지표인 미국 장단기 금리차(10 년물과 3 개월물)가 -155bp 로 여전히 역대급 축소된 상태라는 점, 2) 2%대에 진입하지 못해 연준이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지만,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 추세 자체는 형성됐다는 점, 3) 고강도 긴축에 따른 추가 부작용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이를 뒤 발표 예정인 7 월 FOMC 이후 연준의 긴축 경로를 둘러싼 변화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겠으나, 추가 인상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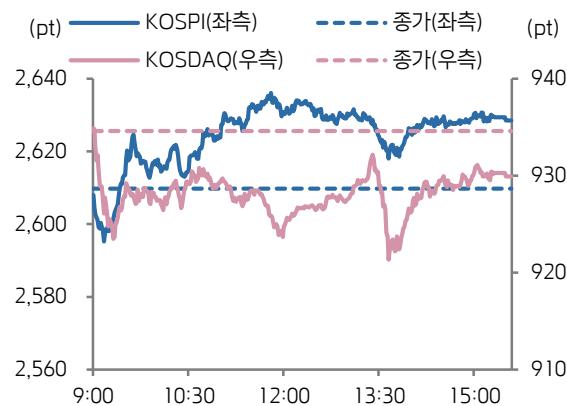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금주 대형 이벤트들을 앞둔 대기심리 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도 2 차전지주를 중심으로 한 개입 수입 유입 효과 등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7%, 코스닥 -0.5%). 금일에는 7 월 FOMC 경계심리 vs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미 증시 강세 등 혼재된 미국발 재료 속 국내 개인과 기관 및 외국인 간 수급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업종 관점에서는 2 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및 수급 변화가 금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지난 6 월 말을 기점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 8 월 MSCI 지수 편입 기대감도 재차 맞물리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수급이 해당 그룹주로 몰렸던 상황.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남수록 밸류에이션 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 그룹주에서 수급이 이탈해 반도체, 엔터, 바이오 등 여타 업종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도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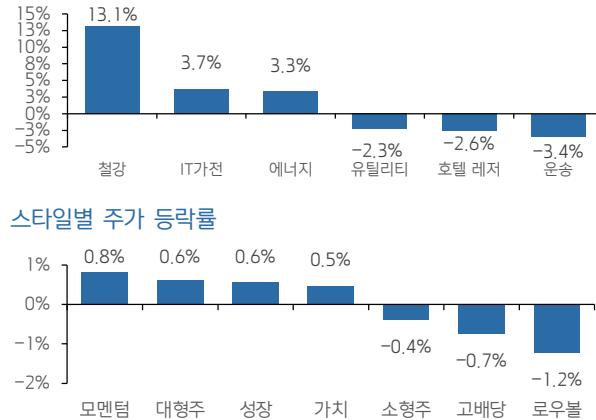
하지만 전일 POSCO 훌딩스(+16.5%), 포스코인터내셔널(+29.9%) 등 포스코 그룹주들의 동반 주가 급등이 시사하는 것처럼, 업종 간 순환매가 아닌 2 차전지 업종으로 수급이 추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전일 개인의 코스피 전체 순매수는 4,710 억원이었으나, 철강금속 업종 순매수는 8,694 억원을 기록하는 등 개인들은 포스코 그룹주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물론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이 상기 포스코 그룹주들의 전일 주가 강세를 뒷받침한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 또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내수 소비 자극 조치 등 경기 부양을 강조했다는 점도 위안화 강세와 연동되면서 국내 시클리컬 업종들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시킬 여지는 존재. 다만, 전통적인 시클리컬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단기간에 폭등했다는 점은 일부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금일에도 포스코 및 에코프로 그룹주 포함 2 차전지 주들의 수급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